

브라질 금융시장 동향

□ 기준금리(Selic rate) 인하 추세

- 2012년 3월 7일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.75% 포인트 인하하였음. 이로써 브라질 기준금리는 9.75%로 낮아졌으며, 올해에도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금리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브라질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자,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존의 통화긴축 기조를 선회하여 2011년 8월부터 다섯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음.
-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2012년에도 당분간 금리인하 추이는 지속될 전망이다. 특히, 대외환경 악화로 인한 수요둔화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어,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9.25%까지 인하할 가능성을 밝혔다.

<표> 브라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추이

(%, 연리)
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2009	12.75	-	11.25	10.25	-	9.25	8.75	-	8.75	-	-	-
2010	-	-	-	9.50	-	10.25	10.75		10.75	10.75		10.75
2011	11.25	-	11.75	12.00	-	12.25	12.50	12.00	-	11.50	11.00	-
2012	10.50	-	9.75		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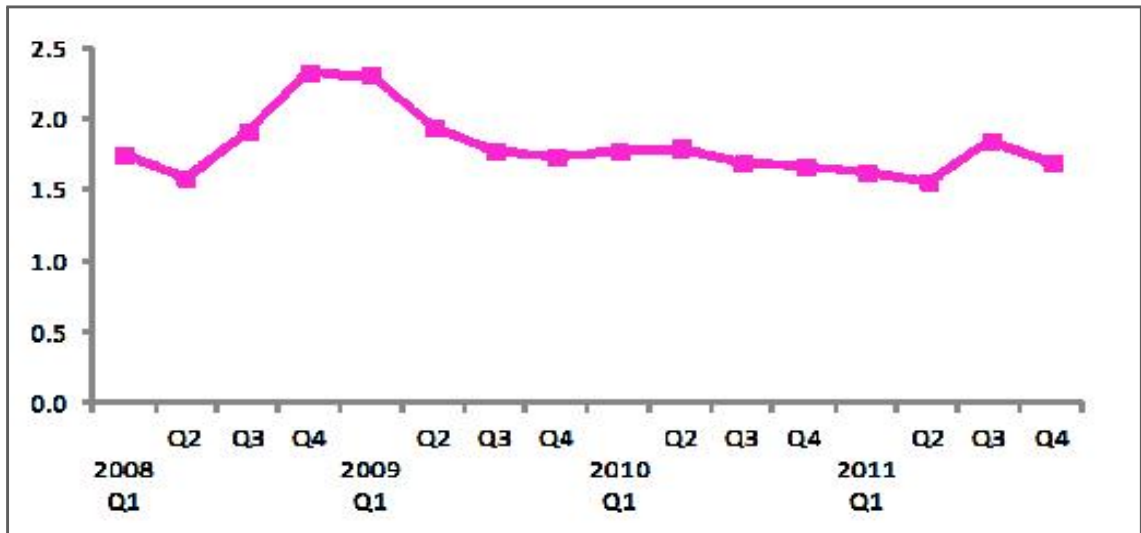
자료: 브라질 중앙은행.

□ 헤알화 환율 변동성 증대

-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헤알화는 급등락하고 있음.
- 브라질 경제가 고도 성장세를 이어가던 2011년 6월 말에 헤알화가 달러당 1.56헤알을 기록하는 등 헤알화의 평가절상이 지속되었음.
- 그러나 2011년 3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자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1년 9월말에 헤알화 환율이 달러당 1.85헤알까지 상승하는 등 약세로 반전되었음.
- 2012년 1월 말에 헤알화가 달러당 1.79헤알을 기록하는 등 환율이 1.7헤알에서 1.9헤알을 오가며 변동성이 심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.

<그림 1> 브라질 헤알화 대미달러 환율 추이

단위: 헤알/US\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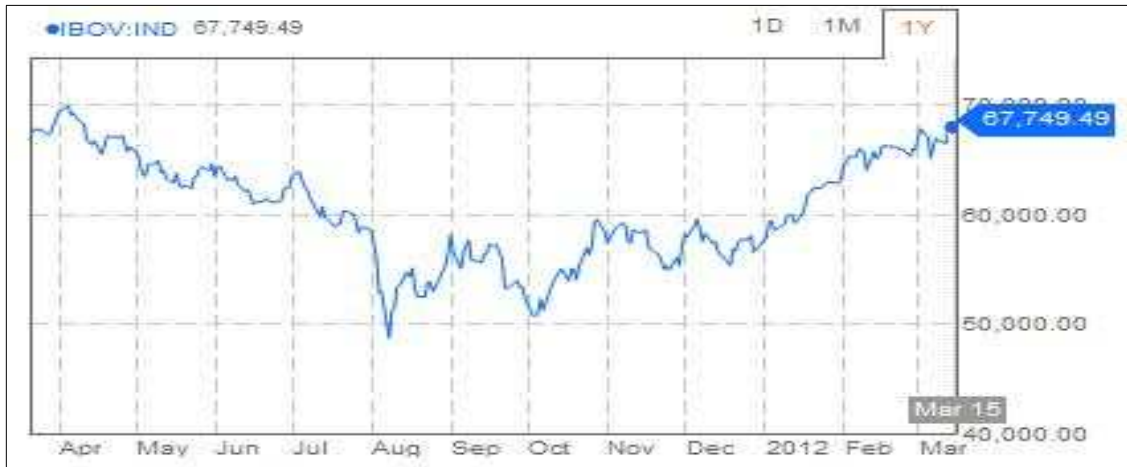
자료: EIU.

□ 주식시장 상승세 회복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를 보여 온 상파울루 보베스파(bovespa) 지수는 2011년 3분기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급락세를 보였음.

- 2011년 9월 말 동 지수는 6월말 대비 16.2% 하락한 52,324p를 기록하며 2009년 6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짐.
- 2012년 들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, 내수시장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주식시장도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하였음.
- 보베스파 지수는 2012년 1월 2일 57,829p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 하여, 2012년 3월 15일 기준 주가지수는 67,749p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음.

<그림 2> 브라질 Bovespa 주가 추이



자료: Bloomberg.

책임조사역 : 이기수 (☎02-3779-5719)
 E-mail : real_ksl@koreaexim.go.kr